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대학생-청년을 위한 5부예배 신설

주일 오후 3시에, 8월 24일부터 실시, 김성관 담임목사가 설교 담당

지난 8월 6일(수)에 실시한 8월 정기
당회에서는 오는 8월 24일(주일)
부터 대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5부
예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교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차세대 교회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배려 등의
이야기가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1997년도에는 교회
내 단독세대의 젊은이를 위한 청년교구
(19교구)가 신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
는 중이다.

특히 김성관 목사가 부임하여 온 이
래 김 목사는 젊은이에 대한 예경과 관

심을 말씀을 전하는 시간마다 피력하여
왔고 직접 젊은이들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의 필요성을 절감한데서 김 목
사가 스스로 이를 제안, 지난 당회에서
결정된 일이다.

이처럼 담임목사가 필요성을 가지고
직접 제안한 일이기 더욱 특별한 의
미를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교회내
젊은이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고 또
한 젊은이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의 교회의 주인공으
로 필요한 신앙과 실력과 덕성들을 키
우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5부예배는 김성관 목사가 귀국하여
곧 실시할 수 있도록 8월 24일 주일부터
드리기로 했다. 5부예배 신설에 따른 제
반 사항들은 관련 위원회들 간의 협의
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학원전도회에서

교사 여름수련회 가져

8월 14일(목)-8월 16일(토)

학원전도회(회장 김단용 장로) 교사
여름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1
박 2일의 일정으로 충현기도원에서 있
게 된다. 주제는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
이 됩시다' 이고 강사는 김필수 목사, 박
용화 목사(낮은울타리 기확실장), 전성
일 교수(신경정신과 전문의)이다.

97년도 전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 기간: 8월 31일까지
- 시간: 10:00 ~ 14:00,
15:00 ~ 16:00
- 장소: 선교관 404호
- 대상: 당회 산하 각 위원회
및 소속 기관
- 준비물: ① 연장 ② 증명서류
③ 통장 ④ 세신표
⑤ 금전출납부

충현동산에 장례식장 설치

실제 경비만으로 교인들은 누구든지 이용 가능

기독교적 장례문화를 여는 기회로

묘지 봉분도 10cm 높이의 평토장으로

8월 7일부터 실시, 아름다운 동산 조성

교회는 충현동산에 장례식장을 신
설하기로 하고 석장 설립준비위
원에 김방진, 노광현, 오진국, 김재명, 김
여순 장로를 선임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동안 각 가정이나
병원 등에 시신을 안치하고 문상객
을 맞고 입관예배, 발인예배를 드린 후
요소로 가는 절차를 거쳐는 것이 일반
적인 경우였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러한 커다란 일을
치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많은 경우에는 병원의 영안실을 이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병원 영안실
은 아무리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할지
라도 다른 많은 조문객들과 뒤섞이고
혼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례문
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교회가 직
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필요성을 제기
해 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으로 걸어
들고 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

장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장례문제라고
볼 때 기독교적 장례문화의 한 면을 새
롭게 세운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장
례절차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을 많이 대하게 될 때 그들에게 기독교
인의 소망과 의미를 현장적으로 보여
주어 전도적 효과도 매우 크게 될 것이
다. 비용면에서도 매우 절감되게 된다.
비용은 화관한 때까지의 실행비(식대
등)만 들기에 부담없이 장례식장을 사
용할 수가 있게 된다.

장례식장은 현재 충현동산 관리동 1
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모든 준비를 신
속하게 마친 후 곧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충현동산 관리부(부장 김여순
장로)는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온 현재
의 묘지 봉분형태를 높은 봉분형에서
선진국형인 묘태로부터 10cm 높이로 수
평화 조성하기로 하는 안을 당회에 제출.
허락받음으로써 즉시 이를 실시하기로 했
다. 이렇게 봉분을 수평화함으로써 관리도
용이하고 보기도 좋아 공원형의 동산
조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각종 모임과 회의

평일 새벽기도회 후 모임 늘어나

새벽기도회 출석 및 교통체증, 무더위에서 벗어나

새
벽기도회 회집 인원에 증가하면
서 교회 내의 새로운 풍속도가 생
겨나고 있다.

각의 모든 모임과 회의가 주일에 집중
되어 있던 것에서 평일 새벽기도회로
바뀌어 모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금년같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
름철에는 새벽에 모임을 가짐으로 상대적으로
기분과 마음으로 도와와 회의를 진
행할 수가 있고 효율도 높고 평일 저녁
시간때의 차량 체증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모임은 거의 모두가 직장인들

한전도하나 메트로전도회에는 아주 좋
은 기체가 되고 있다. 이들은 새벽기도
회에 참석하고 회의를 한 후 교회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게 된
다.

예배위원회에서는 매일 릴레이를 주
례회로 바꾸고 매주 화요일 새벽기도
회 후 회의를 하고 있다. 이처럼 주례회
의를 함으로 회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
고 매주 월 일요일을 매주함으로 천교와
마음을 하나로 하는 데도 매우 유익하
다고 예배위원장 김재명 장로는 말하고
있다.

97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교육 일정

요일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0일 (주일)	1교시 11:00-11:50	구원론 (한근수 목사)	교육관 314호	구원론 (현상민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김희수 목사)	교육관 310호
	2교시 11:00-11: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17일 (주일)	찬양예배			학습, 세례식(본당)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심판과 회복

(이사야 4:1-6)

이사야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무섭게 지나가고 나서 그 형편이 어떠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 가정의 균형이 파괴되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이 조금 남았고, 남자 중에서 장정이 될 만한 자는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었고 원수 앞에 포로로 잡혀 갔고 부상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가운데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장정은 그 수가 너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나로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 달라고 청혼을 하겠다는 기막힌 말씀입니다. 전쟁의 심판이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2. 남아 있는 자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6절까지는 앞장에 나오는 무서운 환난들이 모두 지나간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 남아 있는 자란 어떤 자입니까

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란 말씀은 육신이 죽지 않도록 피신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품 안으로 이사한 자란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단연 끊어 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삿짐을 옮겼다는 말입니다. 욕심을 따르거나 정욕에 끌려가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아서 환난날을 무사히 통과하여 남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남아 있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② 시온에 남아 있는 자입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란 알곡 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에 한밭에서 알곡과 컄짚이를 거두어 들어 바람에 날리면 컄짚이는 전부 날아가고 알곡은 모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면 충현교회에 알곡 신자가 몇 명이나 남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 있는 자'란 환난의 바람에 날아가는 자가 아니고 알곡처럼

남아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는 세상 풍속에 휩쓸려 가지도 않고 이단의 바람에 밀려 가지도 않습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즉 마음 속에 진리의 알맹이가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③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란 말은 교회를 지킨 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자'로 복을 주십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 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겸손하였고, 타락한 지도자와 함께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청렴하였으며, 사치하고 음란한 여자들과 함께 춤추러 다니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남아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 남아 있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① 아름다운 이름을 얻습니다.
남이 보기에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명예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니엘은 그 믿음의 절개가 아름다웠고 요셉은 신앙과 육신의 절개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름답고, 인격도 겸고 두려움이 없는 능률함이 아름다웠습니다.

②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로운 것이요'란 말은 지극한 상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편안한 때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환난날에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급과 영화로운 명예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③ 소산의 복을 받습니다.
땅 위에 살 때에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입으면서 삽니다. 복받은 사람이 살 때에는 곡식도 사과도 배도 아름답게 달립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

저와 여러분은 '남아 있는 자'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고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아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으면 짐승이나 곡식도 저주를 받고, 물고기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풀 한 포기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억만 가지 소산이 아름답게 결실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복을 받으면 짐승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남아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나서 나라를 망했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 수천 리가 넘는 머나먼 바벨론에 끌려 갔습니다. 다니엘은 친척도 부모도 없는 원수의 나라에 의롭게 끌려 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로 시험이 왔습니다. 음식을 주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궁한 몸이어서 음식을 볼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을 생각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만 채소만 주세요" 이것이 바로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날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알곡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다니엘은 공부를 마치고 졸업시험을 칠 때에 일등을 했는데 그 성적이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장이 되었고 또한 국무총리가 되어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거절하였더니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을 30년, 50년을 먹고도 남을 것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을 위해서 나무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채소도 가장 좋게 자라납니다. 복받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꽃도 열매도 채소도 복을 받는데 그것을 남은 자가 사용하면서 살도록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④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복을 받

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면서 면류관 상급을 주셨지만 또 다시 성령을 보내어 그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생명이라도 또 더러운 것이 있어서 성령을 보내시어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⑤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로 '남아 있는 자'들을 완전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낮에 해가 상처 않도록 구름으로 덮어 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고 또 짐승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화염의 불꽃검으로 지켜 주십니다. 또한 그 위에 천막을 치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악마도 사람도 짐승도 자연도 해할 자가 없는 완전한 보호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사는 그에게는 손댈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아 있는 자'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고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아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지나가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남아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거짓말을 하고 악마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 더 먼저 죽고 믿음을 지키려고 욕을 먹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피난하고 시온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

JESUS ON THE CROSS

(Romans 3:23-26)

At the very moment of His death, when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the shameful deed at the cross became by redemption the turning point of human history and the whole drama of universal super-history! Amazing!!! Totally wondrous!!! The Lord Jesus Christ's once and for all sacrifice of atonement changed the entire world and offered us a future of hope, an opportunity for salvation and most importantly eternal life.

In the book of Romans, the apostle Paul gives us a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faith. He explains the full meaning of Jesus on the Cross by proclaiming the purpose and reason for the gospel of God. Paul details the ecumenical value of righteousness through faith. His beautiful description of the meaning of Jesus on the cross helps us better understand and appreciate God's incredible grac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s a true and accurate account of men (vs. 24). No one, not even Abraham, Moses, Noah, or David was without sin. 'All' humans have sinned, no one is exempt from this crime except Christ. He was blameless; He was pure; He was innocent; He was righteous; and He was without sin.

Although we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we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vs. 24). Our sin has been 'justified freely' - it has been completely cleared and taken away by Jesus on the cross. God's grace allowed His only begotten Son to die and take away all the world's sin so that we could restore our relationship to Him. Jesus was the innocent Lamb of God, yet he became legally guilty of sins of people who some day would be His forever.

'God's presented Christ as a sacrifice of atonement, through faith in His blood' (vs. 25). This demonstration of God's righteousness, this freedom from guilt and sin, this incredible gift, effected and effects all mankind.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 5:21). Without Jesus' sacrifice, there would be no salvation from sin and thus we would not have any communication with God.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s it possible to have communion with God - to have direct access to God. There is no other means; There is no other possible connection; There is no other way to communicate with God except through His Son, our Savior.

"He did this to demonstrate His justice because in His forbearance He had left the sins committed beforehand unpunished" (vs. 25). The people of old were required to repent for their sins through burnt offerings, animal sacrifices, and a high priest but this atonement was only temporary, not complete. The sins of the world required a payment. A huge payment. A payment only Jesus could afford. God patiently waited for Christ's death on the cross to complete the payment for the sins of Old Testament saints as well as for our sins.

Jesus carried all the evil of the world - past, present and future! Just think about it. He was the most sinful man who died on the cross! Christ took all our sins to the cross: sedition, hypocrisy, rape, adultery, rebellion, robbery, child abuse, and others. The most terrible criminal died on the



● 김성관 목사의 다음주 설교 ●

십자가상의 주님

(로마서 3:23-26)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은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고 우주의 전 역사의 드라마를 뒤집어 놓았던 놀라운 시점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실로 경이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단 한번뿐인 대속의 희생은 온 세상을 변화시켰으며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와 구원의 기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독 신앙의 정확한 이해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과 이유를 선포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온전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의 전반적인 가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하여 아름답게 묘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24절). 아브라함, 모세, 노아 또는 다윗 같은 분이 라 할지라도 아무도 죄없는 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지었기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러한 죄악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시고, 순전하시며, 순결하고,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24절).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의하여 우리의 죄악이 견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는 영원토록 그의 소유가 될 백성들을 위하여 법적으로 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25절).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명과 죄책감과 죄로부터의 자유, 이 놀라운 선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교통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아무 방도는 없고, 다른 연관 가능성도 없으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어느 길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25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짐승을 희생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죄는 완전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만 치르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시기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은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치안 방해죄, 위선, 강간, 간음, 반역, 강도, 어린이 학대 등의 모든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말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2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지

cross.

"He did it to demonstrate His justice at the present time, so as to be just and the one who justifies those who have faith in Jesus" (vs. 26). Without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there was absolutely no hope for mankin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The house of Israel fell so many times that there was no hope for a future. God gave the people of Israel hope. He gave us His Son so that we could continue to be His people and He our God.

Is this salvation free? Yes, from our standpoint. But from God's standpoint it was an incredible cost! God gave, God suffered, God purchased us through the blood of His only Son.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we serve the God of a broken heart. Pain is not an abstract feeling with Him. He is not a cold, impassive God sitting in heaven watching the suffering of His creation with bewildered wonder. In the Person of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God entered into our suffering.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God the Father looked on and withheld His hand as His sinless, pure, stainless, and innocent Son was mocked and beaten. And then as Jesus bore the sin of the world on the cross, the Father had to turn His face away as Jesus cried ou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ark 15:34) At that precise moment, darkness fell over the whole land and the sun was obscured.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Jesus conquered death, the final payment of sin, and made eternal life possible for millions. This demonstration, this sacrifice is God's grace - God's unending grace. So great is His grace that there are no words to describe it - its truth is unspeakable. It is an act beyond our human comprehension. What we know is that only through God's grace do we become His children.

This is the message that will reach to all the ends of the earth. This is the message of God's ultimate love - His demonstration of righteousness - His justness - His unending mercy - His grace. This intimate connection between God and man, found only in Christ, allows Christians to overcome evil and our natural born sinfulness.

God's love is far greater than any human act of love. And yet, how appreciative are we? "Then I heard every creatu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on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singing: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praise and honor and glory and power, forever and ever!" (Rev. 5:13). This honor, this worship, this praise belongs in all our hearts.

It is only by coming to know "the truth" - the truth that God sacrificed His only Son, Jesus Christ, on the cross as a final payment for sin - that one comes to know God, for He can be known only through Christ. Jesus on the cross represents God's grace - a righteousness given to us through faith.

않으셨다면, 인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값없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그의 독생자의 피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앉아서 그의 피조물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의아해 하시면서 구경만 하시는 차갑고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찢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며, 점도 없으며 흠도 없으신 아들에게서 모욕을 당하며 매맞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돕는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 라고 부르짖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돌려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온 땅이 어두워지고 해도 가려졌습니다.

성전의 휘장도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마지막 대가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이 희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실로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훈의 행동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의 공의의 입증이요 그의 율오심이요 그의 끊임없는 공훈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밀접한 연결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악을 극복하고 우리의 본성의 죄악성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인간의 사랑의 행위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이러한 영광, 이러한 예배, 그리고 이러한 찬송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진리는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신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원하고 고대했던 역사적인 서울올림픽(1988. 9. 17~10. 2)을 앞두고 온 세계가 서울 잠실의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집중되었던 1988년은 우리나라 및 중화교회가 역사상 큰 획을 그은 해였다. 국가적으로는 오래동안 독재 및 군사정권의 아성에서 벗어나 그렇게도 우리 국민 모두가 원했던 민주화의 초석이 이루어지는 해였으며 또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가 되었다. 소련, 동구권, 중국 등 공산국가들을 포함한 160개국에 참가한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 회교권을 위시한 다양한 문화권의 임원, 선수, 관광객이 분단의 나라인 한국의 서울로 모여 들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때가 복음 전파의 최대의 기회라 생각하여 88년 8월 28일 드디어 영어예배부(English Worship Service)를 개설하여 5대양 6대주에서 온 올림픽 관계자 및 주한 미군 및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예배를 시작하였다. 정하우 장로가 부장을 맡고 지도는 윤영탁 목사가 담당하였다. 30여명의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복음 전도로 인하여 참석하는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 오늘날에는 250여명이 모이는 영어예배부로 성장, 발전하였다.

영어예배 개설 후 곧 영어교육부(English Bible Sunday School)를 개설하여 1989년 초에는 최초의 겨울영어성경계절학교(Winter English Bible Retreat)가 열렸다.

영어예배 및 교육부 약사

이후 영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신 Terry Pye 목사님 내외분이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J. Werner 목사, Ray Miles 목사,

로봉원 목사, 김정우 목사, Hauzinger 목사가 계속 지도 및 협동목사로 수고하셨고, 이병학 장로, 박용삼 장로, 김천재 장로 등이 부장 장로로 계속 책임을 지고 영어예배부 및 영어교육부를 이끌어가서 현재는 영어예배에 250여명, 영어교육부에 200여명 등이 참석하고 있다. 3년 전부터 국제교구가 구성되어 함께 구역 및 지역 모임을 갖고 있다.

그동안 영어예배 및 교육부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이곳에 와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수고의 열매가 오늘의 성공적인 영어예배 및 교육부가 이루어진 배경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이곳에서 수고하고 떠나가신 분들 중 O'Connell 부부 및 Mark E. Anderson 매국 중령 부부, Keith Swartley 부부, Mark Schultz 및 Michael Chung 부부, 장충균 집사 부부, 3정애(남정애 권사, 김정애, 이정애 집사), 이수철 집사, Jacob Kim 전도사, Katherine Choi 여전도사, Rodger Nam 전도사 등 많은 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으로 오늘의 부흥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 그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부 성(집사, 영어교육부 부장)

◆ 농어촌전도사역을 다녀와서 ◆

해남으로 가는 길

김 준
(청년1부)

해남으로 가는 길은 멀고 먼 길이 아니었다. 그곳은 갯바람을 타고 바다내음이 실어오는 푸른 바다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마을로 변모해 가는 70가구가 웅기종기 모여사는 옛날의 전형적인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구암리의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었다.

청년1부의 낙도·오지 사역팀인 전국일꾼 해남팀은 구암리의 사역을 위해 여름성경학교, 찬양, 인형극 등 모든 행사를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를 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영접할 50명의 심령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청년1부의 1차 낙도·오지 사역팀인 추봉도팀, 서좌도팀, 죽도팀은 파송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사역지인 섬으로 향했고 우리의 해남팀은 찬양예배가 끝난 후 곧바로 해남으로 출발했다.

새벽녘 목포에 도착하니 허춘호 목사님이 우리를 반겨 주었고 사모님의 정성이린 진수성찬의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꿀잠을 잤다.

이튿날 4시 15분 교회의 종소리가 사역의 첫날이라고 알리듯이 바닷가까지 울려 퍼졌다. 예배당에는 머리가 백설이 된 할아버지와 햇볕에 검게 그을린 아낙네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우리는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밖으로 나가 보니 아름다운 구암리의 마을이 보이고 조용한 아침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하

얀 물새가 섬을 향해 날고 있었다. 이곳이 지상천국 같은 생각이 들었다.

동이 튼 아침 해남팀은 정자나무의 주위를 쏘고 마을 어귀에 무성히 자라고 있는 잡초를 말끔히 제거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에게 첫인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온 예수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봉사한다는 것을 심어 주었다.

이렇게 첫날 사역의 깃발을 날리며 꽃았다. 오후 1시, 정자나무의 주위에는 마을 주민들이 일을 끝내고 한가로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해남팀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잠시 망설임이던 용기를 내어 2인 1조로 아저씨들의 곁에 앉아 4영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 마음의 문을 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열심히 전도했다. 기도의 소리가 흘러 나왔다. 우리는 각각 주민에게 영접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사역을 거둔히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이틀째의 전도사역에서는 구암리로부터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25가구가 있는 역수리에서 전도하였는데 이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무려 27명이나 되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들녘에 나가지 않는 주민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전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 해남팀은 오전과 늦은 오후로 하루에 두 차례 고추밭에 가서 농사일을 했다. 푸른 바다를 등에 업고 푸른 들

녘에서 빨간 고추를 따다. 그것이 낯설고 힘든 농사일이었기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어느 농부 못지 않게 해낸 것이 아닌가. 이마에 맺혀 있는 구슬땀을 수건으로 훔쳐가며 때로는 전도하며 굵은 허리가 아프면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일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향기를 드리내는 계기가 되며, 우리에게 땀을 흘리면서 얻어진 값진 일의 보람과 농사일이 힘들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농부에 대한 고마움도 느꼈다. 저녁에는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다. 초, 중, 고등학생으로 약 30명이 모여서 찬양과 성경에 입각한 창조론과 진화론 등을 가르쳤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사역 마지막 날의 아침해가 밝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은 성령 충만 하였고 마을 잔치때 결신자가 많이 나오도록 기도했다.

이날 점심때에는 김천채 장로님과 정은숙 자매가 오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들녘에 가서 아침 사역을 잘 마치고 김천채 장로님의 누님이 경영하는 식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김천채 장로님과 정은숙 자매를 만났고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진도에 들렀다. 해남과 진도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진도대교를 보았고 특히 이곳이 존경하는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 군사 200명과

12척의 전선으로 왜선 133척을 맞아 해류를 이용하여 무절했던 명량대첩지였다. 충무공 이순신처럼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저녁에는 마을잔치가 벌어졌다. 코흘리개 동네 아이들로부터 할아버지가 지 약 120명의 마을 주민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인형극을 눈빠지도록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기에 바빴다. 그후 고승균 집사님의 설교와 고향을 사랑하는 김천채 장로님의 간증, 그리고 김창중 팀장의 영접기도로 사흘 동안 사역의 막이 내렸다.

이 구암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꼭 신앙촌이 되리라! 우리 해남팀은 위대한 일을 해냈다. 우리 해남팀과 다른 사역팀은 고추, 옥수수를 한아름 안고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감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고, 청년1부는 예수 제자들 되기를 힘쓰고 있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땅끝까지 간다는 뜻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제 2교구 농어촌전도대원 18명은 7월 15일 오전 7시 교회에 모여 담임목사 김성관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전도 숫자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최후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각오하고 씨 뿌리는 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 주기를 부탁받고 소나기가 내리는 일기 속에서도 사역지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파송된 곳은 경북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 울곡교회. 이 교회는 김정순 집사님이 꽃다운 청춘의 나이(22세)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하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10년의 세월을 방송국에 호소하는 손성원씨의 사연을 접하면서 김 집사님이 손성원씨에게 달려가 결혼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한 후 19년간 생활하면서 불구인 남편을 시골버스편으로 교회까지 인도하기가 너무 힘에 벅차 17년 전 울곡리 자기 집터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한 알의 밀알이 결실이 되어 새싹이 나 40여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로 발전하였으나, 교역자의 실수로 한때는 교인이 겨우 5, 6명 정도 출석하는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역자 이흥석 전도사가 부임해서 현재는 장년 11명, 중고등부

※ 농촌전도활동을 다녀와서 ※

씨 뿌리는 자의 각오로 사명 감당

박종규
(집사, 2교구)

4-5명, 초등부 3명 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 18명은 오후 1시 30분 이곳에 도착해서 계획된 순서대로 4



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전도팀을 7개의 조를 나누어 각자 할당된 마을로 축조전도를 나갔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

어 하나님은 장마비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농번기인데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

었고 모든 일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저녁 8시 부흥회에는 74명이 참석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배 후

11시 평가회를 진행, 전 대원들이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음날을 준비하였습니다.

둘째날, 굵은 비는 아니지만 오전 10시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10시부터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교회로 인도된 사람들을 윤삼중 목사님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천당과 지옥'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영순면 면장님은 초청을 안했는데 참석해서서 200명이 이날 초청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원들에게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보답이라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8시 부흥회때도 100명이 참석해 윤삼중 목사님이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의 말씀을 정성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초등부 9명은 안강옥 선생님이 담당했고, 중고등부 13명은 장승규, 주순희 선생님이 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날, 은혜롭게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폐회예배를 드리고 합동기도를 드리는 것을 끝으로 농어촌 전도를 마치고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짧은 3일간의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취재수첩

은혜로운 성찬식을 위해 성찬준비위원회 교육 실시



지난 8월 3일 오후 3시 30분 베다니 홀에서는 성찬준비위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

우리 교회 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찬준비위원들은 매년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성찬식에서 사용할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 왔는데 이처럼 함께 모여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찬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하여 교육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을 받으면서 위원들은 그동안도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생각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와 성실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고3을 위한 특강

고등부에서는 지난 8월 3일 오전 10시 10분 아멘홀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은 고등부에서 교사로 봉

사하는 장승규 선생님(기독교리더십연구원 이사)이 '기독교 학생이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는데, 입시 준비로 심신이 지쳐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 에바다부의 채경완군(청각장애, 만20세, 천안 나사렛대학교)이 7월 13~26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에서 100m 달리기 부문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는 세계농아인체육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만 메달로서 우리나라 농아 체육사에 한 획을 긋는 쾌거이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단기선교 사역을 담은 사진을 베다니홀 앞 복도에 서 17일부터 2주 동안 전시한다.

금주의 여름 수련회

· 청년2부 / 8월 17일(주일)~19일(화) / 갈릴리홀
강사는 충신대학원 교수인 정훈택 목

사, 주제는 '행하는 자라야' (마 7:21-27). 정 목사는 신약학을 전공한 교수로 마태복음 강해를 하게 된다. "기독교는 지식적, 감정적 그 이상이어야 한다. 마태복음은 우리를 거리로 내모는 힘이 있으며 움직이기를 요구하고 있다."

· 에바다부 / 8월 14일(목)~15일(금) / 교육관 109호
· 영어교육부 / 8월 14일(목)~15일(금) / 교육관 2층
· 선교수련회 / 8월 11일(월)~13일

(수) / 강원도 영월 북쌍교회 / 대상 - 중, 고등, 대학, 청년부
· 임마누엘찬양대 / 8월 14일(목)~16일(토) / 청수연수원
· 할렐루야찬양대 / 8월 14일(목)~15일(금) / 충현기도원
· 아멘찬양대 / 8월 14일(목)~16일(토) / 고양유스호스텔
· 시온찬양대 / 8월 14일(목)~15일(금) / 구세군수양관
(사진 / 이윤구 기자)

충현복지관 재활 캠프 '힘 모아 사랑 모아'

충현복지관에서는 2박 3일 동안 강원도 원주학습원으로 제3회 충현 재활 캠프를 다녀왔다. '힘 모아 사랑 모아'라는 주제 아래 직업 훈련생 66명, 집단 지도생(중증 장애인) 7명, 지도 교사 19명, 자원 봉사자 6명 등 총 98명이 참석하였다. 작년 여름 여행캠프에 이어 올해 캠프는 자연의 열린 공간에서 캠프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 훈련생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재활 의욕을 고양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자연학습원에 도착하여 개회예배를 드린 후 조별 발표회를 시작으로 2박 3일의 캠프 일정이 시작되었다.

첫날 저녁에 실시한 야간 산행은 훈련생들의 단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써 어두운 산길을 불빛 없이 조를 지어 함께 가는데 중간중간에 얘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매우 침착하고 담대하게 행동했다.

둘째날 아침에는 극기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무더운 날씨에 훈련생들이 지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

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들 잘 참여하였다. 특히 까마득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걸터진 외줄타기 순서가 있었는데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잘 견뎠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태양 아래 모두들 겹겹이 그을린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이번 캠프를 통해 훈련생들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2박 3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주한 외국인근로자 수련회를 마치고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신 광 식

(집사, 선교위 실행위원)

7월 31일, 지난 2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지루한 장마와 35-36도의 무더위 속에서 처음 경험하는 이 수련회를 위하여 선교위원회 실행위원들과 이 사역에 뜻이 있는 모든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이 귀한 이방의 한 영혼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밤늦게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여 왔다.

스리랑카, 인도, 몽골인 등 재적 52명에 출석 25-35명인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공장에서 1-2명 또는 많아야 4-6명 정도씩 여러 지역에 흩어져 모두 16개나 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러한 사역에 매우 비우호적인 사업주들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여름 휴가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그들의 근로 환경은 대부분 매우 열악해서 휴가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전화를 걸거나 공장을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같은 기간에 휴가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국 형제들이 우리 수련회 계획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

을 보여 주시어 우리가 도저히 중단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어 수련회 기간도 7월 31일 저녁 일과 후부터 8월 2일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게 하시고, 장소도 오묘한 방법으로 정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셨다.

그러나 출발하는 날 아직도 우리는 몇 명이나 올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각 공장에 전화로 다시 부탁하고, 아침 일찍 버스출발 대기 장소인 충현기도원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 버스출발지인 충현기도원으로 수많은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모두 아름답고 말쑥하게 차려 입고 걸어서 또는 그들 공장 봉고차로, 또는 그들 사장이 직접 화물차 위에 그들을 가득 태우고 기도원 언덕길을 가득 채우며 계속 모여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승용차로 중간 집결 장소로부터 그들을 계속 태우고 기도원으로 데리고 왔다. 이미 버스 안에는 그들이 가득 타고 있었으며 기도원 마당에는 더 타야 할 40여명이 들뜬 마음으로 코리켓 또는 베드민턴을 하며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는가.

어쩔 수 없이 44인승 버스에 90여명을 태우고 나머지 6명의 형제들을 승용차 2대에 태우고 그들이 타고 온 택시 2대도 대절하여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 신갈-수지에서 출발하는 다른 버스 1대의 상황을 알아 보았다. 할렐루야! 놀랄게도 그 버스에도 한국인 50여명을 포함 100명이 타고 있다 하지 않는가.

드디어 버스 1대를 추가하여 대성리 휴게소에서 분승할 수 있었으며 대절한 택시 2대중 1대는 돌려보낼 수 있었다. 저녁 10시, 무사히 도착하여 남이섬으로 건너는 배를 탈 수 있었다. 승선 인원은 한국인을 포함하여 200여명이었다. 그들 틈에 쏘인 한국인 봉사자들이 오히려 이방인처럼 보였다.

8월 1일 새벽, 한국인 봉사자들의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그들과 상쾌한 잔디밭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승림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으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그들은 충현교회에 참석하는 30-40명 이외에는 모두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이방 형제 자매들로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수련회가 생소하여 일부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형제들도 있었으나

그 많은 인원을 봉사하기 위하여 한국 사람들이 밤을 완전히 새우다시피 했다. 집사님 몇 분은 노천에서 자리를 깔고 눈을 부치는 등 마는 등, 어떤 집사님은 감기는 눈을 주체할 수 없어 주걱을 들고 배식하다 졸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대형 천막 3개를 그들과 함께 옮겨와 설치하며 함께 2박을 지내는 가운데 그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깊은 인상과 큰 충격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으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국인 봉사자들과 이런 일을 마련하여 준 충현교회에 대하여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 깊이 감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형제들이 전설한 사랑의 체험을 하였으며 앞으로 교회에 나오겠다 하였다. 많은 형제들이 교통편을 걱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한날 기우일 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 충현교회를 통하여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

